

‘사랑의 향기’ 자선음악회 개최

지구 문화예술위원회 주관, 11월 5일 백석아트홀, 로타리안 300여명 참석
자선기금 430만원 모금, 에티오피아 어린이 후원, 시리아·필리핀 난민 지원 사업 펼쳐



국제로타리 3650지구 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서정자)가 주관한 자선음악회 "사랑의향기"가 지난 11월 5일, 장세호 총재를 비롯한 총재단과 지역대표, 지구임원, 각 클럽 로타리안 및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석아트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뉴서울RC 이재진 총무의 사회와 장세호 총재의 축사로 시작된 자선음악회는 호세리의 기타연주, 테너 정철화, 한재필(뉴서울RC) 회원의 이중창, 소프라노 정주희(한성RC), 물푸레 리틀렉트 합창단, 테너 하만택(서울사직RC), 메조 소프라노 최혜영(서울중앙RC), 명창 최재길(서울동방RC) 등 문화예술계 몸담고 있는 우리 지구 로타리안들의 열정적인 공연이 이어지며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과 찬사를 이끌어냈다.

피날레 공연으로 출연자 전원이 '사랑으로'를 합창했고, 행사 당일 생일을 맞은 장세호 총재를 축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 "사랑의향기 자선음악회"는 소통회와 서울소통RC, 뉴서울RC, 지구 동호회 위원회, 지구 여성위원회의, 1지역~10지역 지역대표 등 많은 로타리안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성황을 이루게 됐다.

아울러 자선음악회를 통해 자선기금 430만원이 모금되었으며, 이 중 330만원을 지난 11월 20일 지구사무국에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한 양보내기 후원사업을 위해 Hapo Korea Charity Association 김희웅 대표에게 전달했고, 필리핀 난민 지원사업 빵보내기에 50만원, 시리아 난민 지원사업 빵보내기에 50만원을 각각 기부하였다.



자선음악회 성금으로 에티오피아 어린이들을 위해 양 보내기 후원 사업을 실시했다.